



“내년엔 내가 신인왕”
 유창식(광주제일고), 두산 최현진(충암고).

16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프로야구 2011 신인선수 지명회의에서 1순위로 지명받은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넥센 윤지용(동의대), SK 서진용(경남고), 롯데 김명성(중앙대), LG 임찬규(휘문고), 기아 한승혁(덕수고), 삼성 심창민(경남고), 한화 유창식(광주제일고), 두산 최현진(충암고). /연합뉴스

호랑이 1순위 한승혁 ‘찜’

(덕수고 투수)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화순고 홍건희 등 9명 선발
 광주일고 유창식은 한화행

덕수고 투수 한승혁이 ‘아기호랑이’ 1순위로 KIA의 선택을 받았다.

KIA 타이거즈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1 신인 드래프트에서 덕수고 우완 한승혁을 비롯해 9명의 선수를 지명했다.

지난해 성적 역으로 진행된 1라운드에서 8개 구단 중 가장 늦게 선택권을 가진 KIA는 한승혁의 이름을 부른 뒤 성적순으로 진행된 2라운드에서 화순고 출신의 투수 홍건희를 낙점했다. KIA는 10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9명을 선택했다.

우완 정통파인 한승혁은 최고 151km 강속구를 보유했으며 체인지업과 커브, 슬라이더가 수준급이라는 평가다. 홍건희는 140km 중반대 직구를 던지며 경기운영 능력이 좋고, 빠른 슬라이더가 강점이다.

3라운드에서 지명된 2010년 한미선수권 대회 대표 윤정우(원광대·외야수)는 도루 센스와 주루 능력이 뛰어나고, 4라운드에서 뽑은 우병걸(제주산업대·투수)은 직구 최고 구속이 147km로 변화구 구사능력과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KIA는 5라운드 정상교(대구고·내야수), 6라운드 유재혁(제물포고·외야수), 7라운드 박기철(광주일고·투수), 8라운드 박세준(개성고·내야수), 9라운드 박태원(휘문고·내야수) 등 총 9명을 지명했다.

2011 KIA 타이거즈 지명선수

순위	성명	포지션	투/타	출신고
1R	한승혁	투수(우완)	우투우타	덕수고
2R	홍건희	투수(우완)	우투우타	화순고
3R	윤정우	외야수	우투우타	광주일고 원광대
4R	우병걸	투수(우완)	우투우타	세광고 제주산업대
5R	정상교	내야수	우투우타	대구고
6R	유재혁	외야수	우투우타	제물포고
7R	박기철	투수(우완)	우투우타	광주일고
8R	박세준	내야수	우투우타	개성고
9R	박태원	내야수	우투우타	휘문고

수), 7라운드 박기철(광주일고·투수), 8라운드 박세준(개성고·내야수), 9라운드 박태원(휘문고·내야수) 등 총 9명을 지명했다.

고교, 대학 선수 7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신인드래프트에서 한화가 1번 지명권을 행사, 초특급 대어 광주일고 에이스 유창식을 선택했다. 유창식은 이에 따라 한화 유니폼을 입고 ‘괴물’ 류현진과 좌완 쌍벽을 이루게 될 전망이다. 한화는 강경화·이영기(이상 동성고), 나성용(진흥고) 등 광주 출신 3명을 더 뽑았다.

롯데는 허일·백세웅·백왕중 등 광주일고의 내야수 3인방을 싹쓸이했고, 넥센은 송원대 투수 김기환을, 삼성은 대불대 외야수 이경록을 각각 지명했다.

이날 지명된 78명의 선수 중 광주·전남에서 고교를 졸업한 신인은 16명에 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6콤비’의 복귀 ... 4강 뒤집기 쇼

(86년생 동갑내기 윤석민-곽정철)



KIA 선발·불펜 마운드 수성 핵심 ‘키’

이번주 넥센·삼성 제물 4위 탈환

뒷심을 더한 호랑이가 4위 탈환에 나선다.

주말 롯데를 상대로 2승을 더한 KIA 타이거즈가 이번주 넥센과 삼성을 제물 삼아 4위 자리에 도전한다. 4위 롯데와는 두 경기차, 4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KIA는 지난주 한화와의 청주경기에서 2승을 수확한 뒤 안방에서 만난 롯데와의 빅매치에서 역시 2승을 더하며 4승 1패의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주말 KIA에 달미를 잡힌 롯데는 힘겨운 한 주를 앞두고 있다. 15일 경기에서 윤석민의 공에 손등을 맞은 ‘타점머신’ 홍성흔이 손등 골절상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됐다. 주중에는 올 시즌 2승10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SK와 만나야 하는 등 절절산중이다.

반면 KIA는 윤석민의 가세로 4위 싸움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6월18일 손가락 골절로 팀을 이탈했던 윤석민은 11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윤석민은 11-2로 앞선 9회말, 54일 만에 마운드에 등판해 2루타와 볼넷을 내주는 했지만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

하며 후반기 첫 스타트를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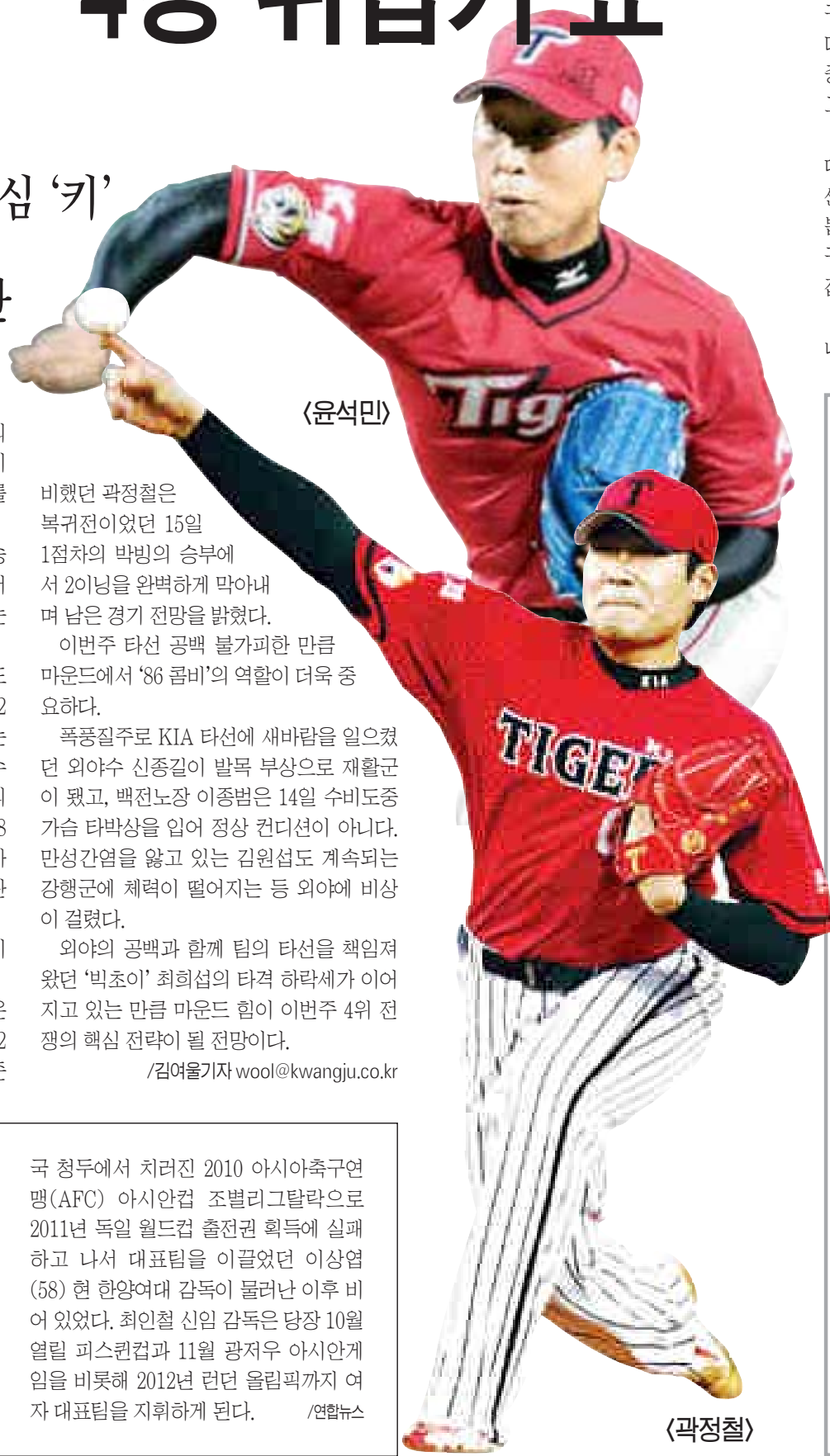
13일에는 2-2로 맞서던 8회 2사 1·2투의 위기상황에 등판해 2010 시즌의 히어로 이대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팀의 위기를 막았다.

마운드 강화로 타선의 뒷심도 동반 상승했다. KIA는 올 시즌 10차례 연장 승부에서 8패를 기록하는 등 마지막 한방이 부족해 눈앞에서 이번 시즌 승리를 놓치곤 했다.

15일 롯데와의 주말 마지막 대결에서도 KIA는 1점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2 동점을 허용하며 어려운 승부를 펼쳐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해결사 김상현이 롯데 투수 이정훈을 상대로 끝내기 솔로포를 쏘아올리며 짜릿한 재역전극을 연출했다. 지난 6월8일 두산을 상대로 이용규의 끝내기 안타가 나온 이후 KIA의 시즌 두 번째 끝내기 한 판이었다.

윤석민과 함께 86년 동갑내기 광정철이 마운드 수성의 키를 쥐고 있다.

지난해 막강 불펜으로 활약했던 광정철은 올 시즌 기나긴 부진에 빠지면서 지난 5월 2군행 통보를 받았다. 절치부심 1군행을 준



(윤석민)

(곽정철)

비했던 광정철은 복귀전이었던 15일 1점차의 박빙의 승부에 2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남은 경기 전망을 밝혔다. 이번주 타선 공백 불가피한 만큼 마운드에서 ‘86 콤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폭풍질주로 KIA 타선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외야수 신종길이 발목 부상으로 재활군이 됐고, 백전노장 이종범은 14일 수비도중 가슴 타박상을 입어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만성간염을 앓고 있는 김원섭도 계속되는 강행군에 체력이 떨어지는 등 외야에 비상이 걸렸다.

외야의 공백과 함께 팀의 타선을 책임져 왔던 ‘빅초이’ 최희섭의 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마운드 힘이 이번주 4위 경쟁의 핵심 전략이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U-20 4강 최인철 여자축구 새 사령탑에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에서 한국축구 사상 역대 최고 성적(3위)을 낸 여자 20세 이하(U-20) 대표팀의 최인철(38) 감독이 여자 A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를 열어 여자 A대표팀 사령탑에 최인철 감독을 선임했다.

여자 대표팀 감독 자리는 지난 5월 중

국 청두에서 치러진 2010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탈락으로 2011년 독일 월드컵 출전권 획득에 실패하고 나서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상엽(58) 현 현안여대 감독이 물러난 이후 비어 있었다. 최인철 선임 감독은 당장 10월 열릴 피스컵과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여자 대표팀을 지휘하게 된다.

/연합뉴스

美 메이저리그 포기 국내 잔류 “석민이 형 처럼 던지고 싶다”

■ 한승혁은 누구

“KIA는 열정적인 팀이라서 꼭 가고 싶었는데 지명을 받아 기쁘다. 프로 무대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이벌인 유창식(한화 지명)과 겨뤄 내년엔 신인왕을 차지하고 싶다”

지난 5월 거물급 에이전트 스포츠 보라스와 계약하면서 미국 진출설이 나왔던 강속구 투수 한승혁(17·덕수고)이 KIA 타이거즈의 지명을 받아 국내 무대에서 뛰게 됐다.

한승혁은 2000년대 초반 대한항공 남자 배구단 사령탑을 지냈던 한장석 전 감독의 아들.

한장석 전 감독은 인하여 졸업 후 실업배구 대한항공에서 라이트 공격수로 활약했고 국가대표까지 발탁됐던 왕년의 스타. 아들인 승혁은 그러나 배구 대신 야구를 선택해 16일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마지막 순위(전체 8위)로 KIA의 낙점을 받았다.

186cm, 88kg의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진 한승혁은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 나온 고교 선수 중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광속구 투수다.

한승혁은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 나온 고교 선수 중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광속구 투수다.

우완 한승혁은 직구 최고구속이 150km까지 나와 일찌감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았고 지난 5월 보라스와 계약하면서 미국 진출이 가시되는 듯했다.

보라스는 한승혁에게 관심을 보인 메이저리그의 3~4개 구단과 일단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승혁은 끝내 미국 진출을 포기했다. 대신 국내에서 기량을 쌓고 검증 받고 나서 기회가 되면 메이저리그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승혁의 아버지인 한장석 전 감독은 “미국 여러 구단이 관심을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고 당장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실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년 국내 프로 무대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IA의 에이스 윤석민과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사 이영상을 받았던 우완 투수 팀 린스컴(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을 가장 좋아한다는 그는 “나 역시 빠른 공을 앞세워 타자들을 압도하고 싶다. 석민 형으로부터 서클체인지업 등 변화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커머스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주요사업: 대표팀 연습경기에서 7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호남동 111-1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전화: 525-2111